

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서해남북접경지역 평화벨트 구상

- 남북접경지역에서의 교류협력이 진전되고 있으나, 서해남북접경지역에서의 평화정착과 서해연안해역 공동이용에 대한 준비 및 제도적 장치가 미흡
 - 북방한계선(NLL) 및 서해남북한 접경지역에서의 평화적 교류협력 추진을 위한 공간 계획과 협력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 구체안이 준비되지 않음
-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서 명시한 “접경지역의 종합적 관리 및 평화벨트 조성”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대책 수립 필요
 - 남북교류협력 추진이 용이한 서해남북접경지역의 주요도서에 평화협력지구 구성하여 인적·물적 교류협력을 추진
 - 다양한 협력사업의 추진으로 군사적 긴장완화 및 남북간교류협력을 활성화
- 단계별 평화벨트 추진 방안
 - 남북한간에 제한적인 협력이 이루어지는 **평화벨트 준비기**에는 서해연안의 평화적 활용을 위한 평화구역 설정
 - 남북한의 교류와 협력이 활성화되어 협력이 정착되어가는 **평화벨트 형성기**에는 평화구역을 북한의 해안과 남쪽의 어로저지선까지 확대
 - 통일이 이루어지기 전 경제적 교류와 협력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**평화벨트 완성기**에는 평화구역을 북한의 황해도 연안지역과 경기만으로 확대하여 평화벨트 구축

1. 서해남북접경지역의 교류협력 현안

- 최근 남북한간 교통망연결, 개성공단 착공, 금강산 육로관광 시행 등 남북한 접경지역에서의 교류협력이 활성화되고 있으나, 서해남북접경지역에서의 평화정착을 위한 서해연안 공동이용의 체계적인 준비와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지원방안이 미흡한 실정임
 - 북방한계선을 중심으로 대규모 군대가 대치하고 있는 서해남북접경지역에서의 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남북한 및 유엔사가 합의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나 아직 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
- 남북한 군대의 대치로 인해 서해연안의 자연생태계와 귀중한 역사적인 유산의 조사와 체계적인 보전이 이루어지지 않아 연안지역의 귀중한 자연자원과 역사적인 유적의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음
-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서 명시된 남북한 교류협력기반 조성을 위해 “접경지역의 종합적 관리 및 평화벨트 조성”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연구의 진행으로 단계적인 정책대안 제시가 필요

2. 평화벨트 구축의 개념 및 필요성

1) 평화벨트의 개념

- 평화벨트의 공간적 개념은 한반도가 처해 있는 특수상황에서 남북간의 긴장을 완화함으로써 평화를 견인 내지 조성하는 지대로 이해할 수 있음
 - 평화벨트(Peace Belt)는 평화를 창출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특별히 설정되는 공간
 - 군사적 긴장이 감도는 지역에서 평화를 만들어 내는 동시에 이를 기반으로 평화분위기를 고조시킬 목적에서 의식적이고 의도적으로 설치되는 국가정책적 공간

- 범위는 비무장지대와 남북한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하고, 남북한 교류협력을 토대로 세계가 함께 만나는 화합과 번영, 평화를 상징하는 지대임

2) 평화벨트 구축의 필요성

- 상호 신뢰회복과 민족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해 남북교류협력 추진이 용이한 서해남북 접경지역에 평화지구 조성 필요
 - 남북한 군대가 대치하고 있는 서해남북접경지역에 교류협력의 공간을 설치하여 평화적인 협력여건 조성 필요
 - 정전체제에서 설치된 비무장지대와 북방한계선 인접지역에 대한 이용체제를 평화와 화합의 시대에 맞도록 전환하여 평화체제 구축 및 통일기반 조성
- 군사작전지역으로 어업활동이 통제되어 경제적 타격을 입고 있는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의 삶의 질 개선
- 서해남북접경지역에서의 교류협력 활성화는 환황해 경제권과의 경제적 연결을 의미하며 이를 위해서는 이 지역에 평화구역을 설치하여 공동관리 필요

3. 평화벨트 구축을 위한 협력지구 및 사업 선정

- 선정의 기본방향
 - 남북교류협력의 중점을 남북한 항구적인 평화와 화합의 증진에 두고 추진
 - 국토 중심지대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한편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자연친화적인 국토이용 구상
 - 서해주요도서 및 북한 연안 주변접경지역의 생태계 우수지역에 대한 보전 대책 수립과 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방안 마련
 - 남북한 공동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 북한 참여 유도
- 협력지구의 선정
 - 지형이 평탄하고 구릉지가 발달하여 충분한 배후지를 확보할 수 있는 도서

- 해상 북방한계선을 중심으로 한 남북한 접경지역에 위치한 도서
- 항만이 양호하여 어업전진기지로서의 역할 수행 가능한 도서
- 주변지역의 성장에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생활권의 중심도서
- 해상교통의 중심축 형성이 가능하여 대외 연계가 용이한 도서
- 이러한 분석의 결과 서해남북접경지역에서는 백령지구, 대연평지구, 교동지구, 그리고 북한의 해주지구가 개발할 수 있는 입지적 우위성이 나타남

○ 협력사업의 선정

- 남북한이 우선적으로 공동대처해 나아가야 할 현안, 남북한 상호협력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, 주요 생태자원 및 문화·역사적 자원의 보전, 북한의 사업참여 가능성 정도, 교류협력 및 평화정착에 대한 파급효과 등을 기준으로 협력사업 선정
- 대상사업으로는 공동어로, 선박항행 협력, 의료지원, 생활필수품 교류, 해양사고, 해상오염, 해양생태 보전, 수산업, 관광산업, 전력생산, 역사·문화자원의 조사 등 선정

〈표〉 분야별 주요협력사업의 선정

구 분	추진가능사업
어업 및 해운협력	- 남북어업협력구역 및 어업전진기지의 설치 - 수산업관련 기술 및 장비교류, 화물선의 대외자유무역로 설치
생활권 협력	- 긴급의료서비스 협력 및 물자교류를 위한 시장공동활용 - 해상교통망 복원 및 연육교 건설
생태계보전 및 재해방지	- 해양생태공원 조성 및 생태계공동연구소 설치 - 한강하류 및 서해연안 접경생물권보전지역 설정 - 해상재난 및 환경오염의 공동 대처
관광 및 자원개발	- 도서 및 연안 관광코스 개발 - 해저자원 공동탐사 및 전력개발
문화·역사자원의 발굴 및 복원	- 서해남북접경지역내 역사유적지 조사 및 공동보전 - 남북한 해양문화·역사 연구소 설치

4. 평화벨트의 추진방안

○ 추진단계의 설정

- 추진단계는 “평화벨트 준비기”, “평화벨트 형성기”, “평화벨트 완성기”로 구분함

- “평화벨트 준비기”는 북한이 대외적인 개방을 추진하는 시기로 남북한간에는 제한적인 협력이 이루어지는 시기
- “평화벨트 형성기”는 북한이 개방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남북한의 교류와 협력이 활성화되어 협력이 정착되어가는 시기
- “평화벨트 완성기”는 남북한이 정치적인 통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경제적 교류와 협력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시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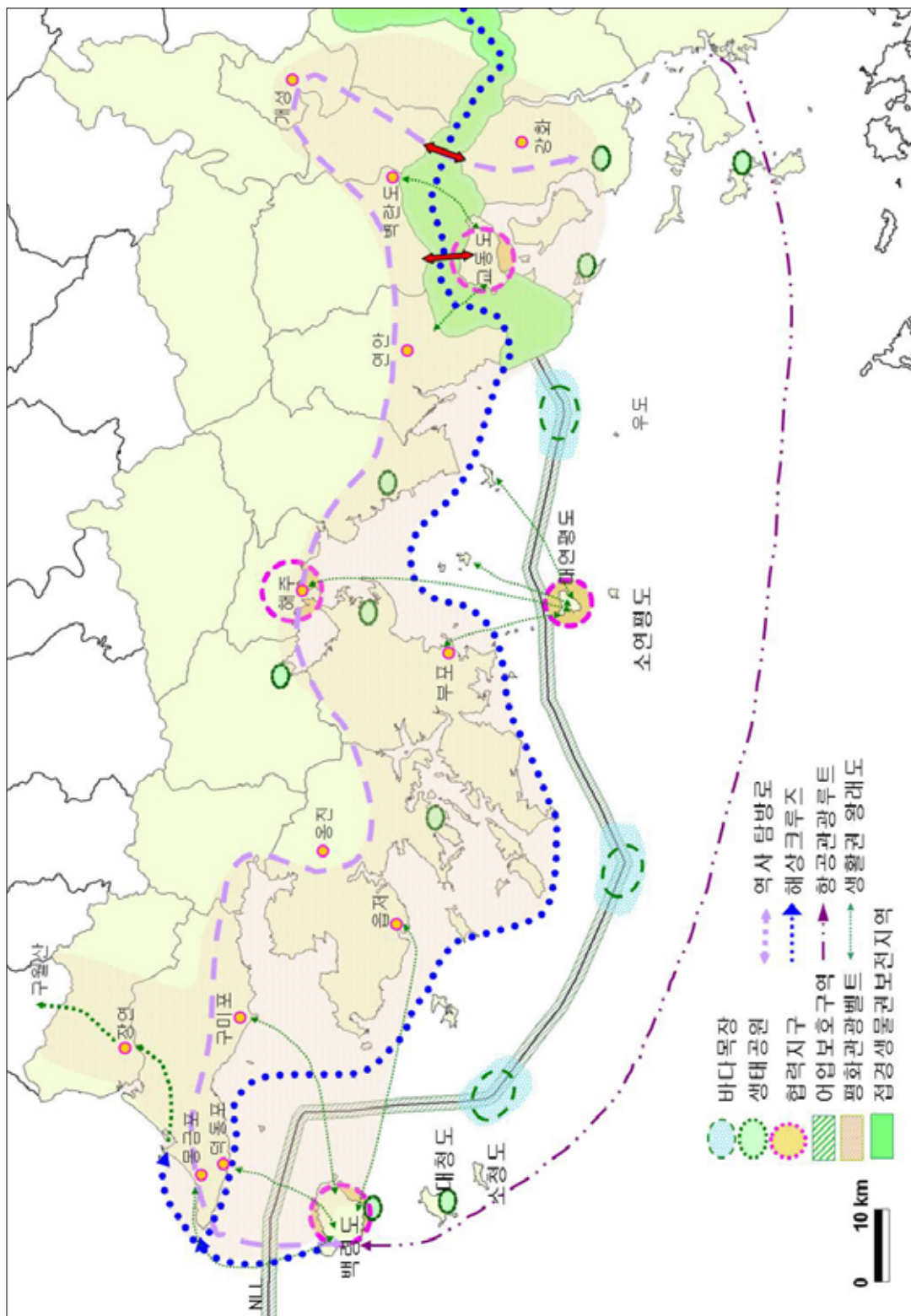
○ 단계별 주요 협력사업 및 추진 방안

- “평화벨트 준비기”의 주요협력사업으로는 서해연안접경지역에서의 해운협력 및 남북어업협력구역 설치추진, 주요생태자원의 공동조사, 해상재난 대처 협력방안 마련, 서해연안의 평화적 활용을 위한 평화구역화 착수, 생물권 보전 지역 설치 추진

- “평화벨트 형성기”의 주요사업으로는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교류협력지구 조성 및 기능별 활용방안 마련, 해상교통망 복원 및 연육교 설치 추진, 주요 생태자원의 공동보전 및 활용방안 마련, 산업협력 및 문화·역사적 유적의 공동조사와 보전 대책 수립, 북한의 해안과 남쪽의 어로저지선까지 평화구역 확대 등 추진

- “평화벨트 완성기”의 주요사업으로는 환황해경제권에서의 해상거점화 구축을 위한 서부연안 주요도시를 “평화의 섬”으로 지정하여 경제공동구역을 조성하고, 북한 연안과 연계하여 평화관광벨트를 조성(관광·교역특구 설치)하며, 점차 평화구역을 북한의 황해도 연안지역과 경기만으로 확대하여 평화벨트를 구축

<그림> 평화벨트 구축을 위한 주요협력사업



국토연구원 김영봉 연구위원 (ybkim@krihs.re.kr, 031-380-0151)

발행처 국토연구원 발행인 이규방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1-6
전화 031-380-0114 팩스 031-380-0470 홈페이지 www.krihs.re.kr

수록된 내용은 국토연구원의 자체 연구물로서 정부의 정책이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. 지난호는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.